

최상의 시설을 갖춘

최고의 병원

2003년 5월 문을 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학교병원은 120,450㎡의 부지에 건축물 연면적 138,247㎡로 지하 3층, 지상 14층의 규모이다. 당초 노인전문병원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건립되었으며, 노인의료, 심장, 뇌신경, 관절, 폐, 건강증진센터 등 6개의 특성화센터
를 갖추고 있다. 76개의 진찰실, 21개의 수술실과 909개의 병실이 있으며, 외래 방문객은 하루 평균 4,000여명이다. 장례식장은 풍수지리학적으로 최고의 명당자리인 배산임수의 터에 연면적 4,93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모든 빈소가 2층 이상의 지상에 배치되어 있다.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의료진과 의료활동을 뒷받침하는 최첨단 디지털시스템과 장비, 자동물류시스템, 의학자료 정보센터 등의 의료 인프라와 지상 757대, 지하 810대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상의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안전은 평소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시설팀 이흥규 과장은 얼마 전의 작은 소동을 통해 평소의 교육과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였다고 한다. 병실에 회진을 다니던 의사가 병동 8층의 여자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다급해진 의사가 쓰레기통에 물을 뿌려 불을 끄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병동의 간호사가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왔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찢쩍 매던 중 평소 간호사실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떠올리고, 20m 정도를 되돌아가 소화기만을 가져다 불을 껐다. 그러나 소동이 가라앉은 후 모두들 실소를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화장실 입구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음은 그제야 모두 알았던 것이다. 바로 옆에 소화기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당황한 상태에서도 평소 늘 보이왔던 간호사실 앞의 소화기만을 떠올린 간호사의 에피소드를 보며, 이 과장은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보다

업계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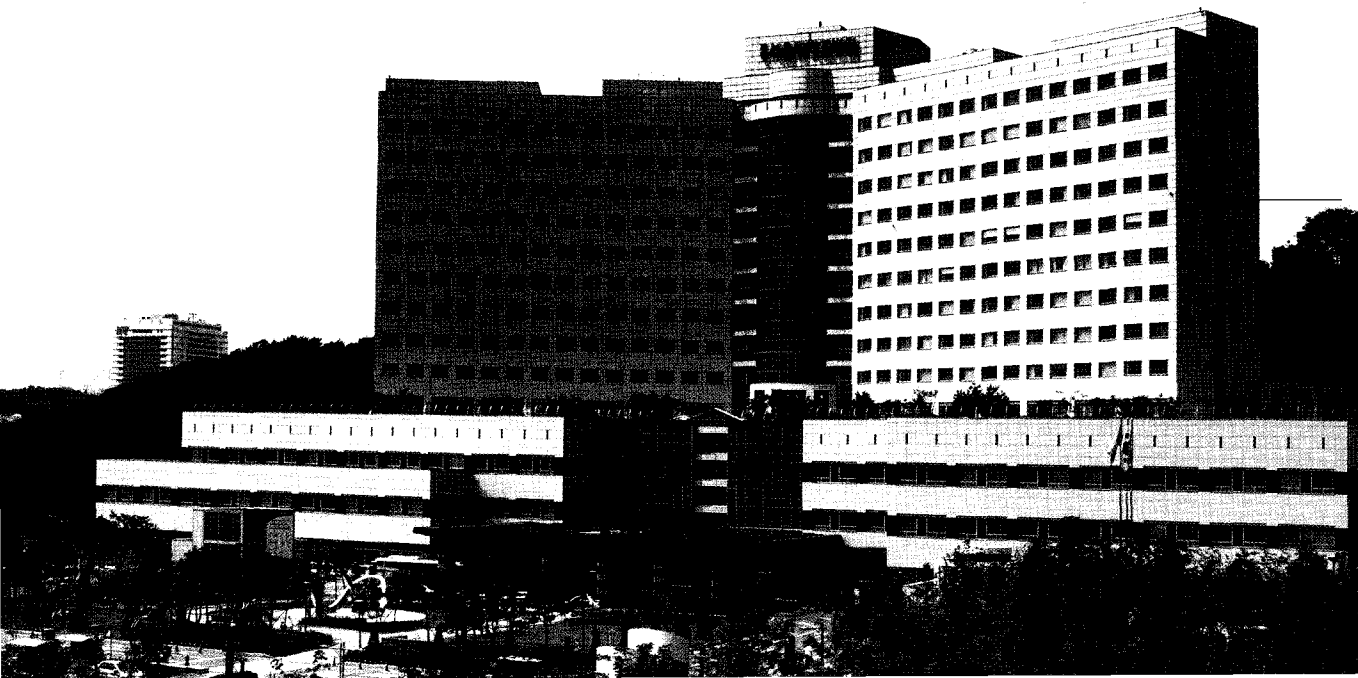
•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글 : 오경규 과장
한국화재보험협회 홍보팀

건강하고 질 높은

이번 탐방은 중앙지부의 추천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번지에 위치한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하였다. 불곡산의 푸른 공기와 탄천의 맑은 물이 어우러진 넉넉한 자연의 품에 안긴 모습이 병원이라기보다는 휴양시설에 온 느낌이다. 이곳에서 방화관리를 담당하는 시설팀 이흥규 과장을 만나 시설현황과 안전관리현황, CEO의 경영철학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국민의 삶을 위하여



강화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100여 대의 소화기를 직원들이 직접 사용해보는 체험훈련을 하고 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분당 서울대병원은 최고 수준의 교육, 연구, 진료를 통해 국민이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을 중시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각종 검사부서를 지하 1층부터 지상층에 배치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성 또한 높였다. 또한 각종 휴식공간을 원내 및 원외에 배치하여 병원의 쾌적성을 크게 높였으며, 1층과 3층 중앙은 Top-light 형태로 구성하여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이 되도록 하였다. 각종 병동 중앙에는 환자와 가족들이 채광이 되는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병실은 자연환기시설(Air vent bar)로 하였고, 4층에는 옥상정원을, 1층 현관에는 옥외공연장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시설팀 직원(제일 왼쪽이 이홍규 과장)

분 당 서 울 대 학 교 병 원

고객과 교직원을 내 가족같이.

‘감성경영’ 천명 정진엽 원장은 6월 9일 취임한 이래 ‘감성경영’을 펼치고 있다. 병원은 일반 기업과 달리 다양한 직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종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하다.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편안해야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대할 수 있다는 게 정진엽 원장의 경영철학이다. 그래서 그는 교직원들이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 최고경영자(CEO)의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따라서 눈높이를 더욱 낮춰 직원들에게 친한 친구처럼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생각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노인질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협진을 통해 포괄적으로 노인환자를 치료하는 장수의료센터를 지난 6월 오픈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인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특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 한다.

탐방을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권위적이라 여겼던 의료계의 변화노력이 절실히 느껴지는 건 지나친 상상일까? 인간과 자연의 조화 속에서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추고, 고객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가치실현을 꿈꾸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

